

“정크아트’ 예술로 승화…기후위기 메시지 전하고 싶어”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승규 씨, 업사이클링 뮤직센터 ‘물꼬’ 오픈 PVC 압착 바이올린·농악분무기 첼로 등 악기 제작…체험 공간도

“물질적 쓰레기는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스트레스, 우울 같은 ‘마음의 쓰레기’는 쉽게 버릴 수도 없지요. 이번에 문화공간에서 펼쳐지는 업사이클링 뮤직은 물질과 마음의 쓰레기가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쓰레기를 의미 있는 예술로 승화시키는 정크아트를 보면서, 우리 마음도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3일 오전에 방문한 업사이클링 뮤직센터 ‘물꼬’(중흥로 209번길 8)에는 세련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이승규씨가 최근 터를 잡은 이 공간에는 감각적인 오브제와 피아노, 그리고 미니카를 닮은 듯한 바이올린, 농악 분무기 통으로 만든 첼로까지 독특한 악기들이 비치돼 있었다. 공간의 이름처럼 계림동에 예술의 ‘물꼬’를 띄우려는 듯했다.

안으로 들어서 악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귀를 막으세요”라는 정중한 요청을 받게 된다. 귀마개를 착용하고 3분간 내 안의 소리에 주목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다. 뭔가 다양한 ‘소리’를 기대하고 들어선 기자에게 이 씨의 요청은 작은 호기심으로 다가왔다.

그러자 침묵 속에서 심박은 드림소리로 들려왔고 들숨·날숨은 관악기처럼 느껴졌다. ‘어떤 소리가

들리냐’는 그의 질문에 기자는 “한 편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었다”고 답했다.

이후 내부를 둘러보니 공간 환경에 이목을 끄는 유니크 첼로 파르렛의 악기들이 있다. 작품들은 이 씨가 2022년부터 버려진 스테인리스 농악분무기와 사용하지 않는 연습용 첼로를 결합해 업사이클링한 것으로 정크아티스트 고근호, 주홍과 함께 제작했다.

최근에는 9개월에 걸쳐 레고 소재의 PVC를 압착해 바이올린도 만들었는데 직접 ‘홀’(바이올린 구멍)을 뚫고 mm 단위의 소재까지 신경 쓴 작품이다.

이 씨는 “업사이클링 악기가 실제 악기와 소리의



문화공간 ‘물꼬’의 내부 전경.

차이가 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직접 커버곡을 녹음해 보니 나무 악기에 비해 차이는 있지만 음색과 음량에 있어 아주 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는다. 최대한 일반 악기와 사이즈 등이 호환되게 만들어 연주자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소박한 ‘프리페어드 피아노 연주회’를 선보였다. 프리페어드 피아노는 현대음악의 거장 존 케이지가 완성한 것으로 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법이다. 미리 구겨진 페트병, 나사못, 맥주캔 등을 현 위에 올려두고 연주해 임의의 소리를 내게 한다. 그동안 쓰레기라면 여겨졌던 사물들이 현 위에서 즉흥성을 갖고 예측 불가한 소리를 만들어 내는 데서 의외의 느낌을 전달한다.

이 작곡가는 피아노 현 중간마다 피스와 워셔 등 나사못들을 꿰고 즉흥곡을 시연했다. 건반을 누를 때마다 울리는 피스와 고리들은 미니 심벌즈와 같이 소리를 울렸고, 현 위에서 팝콘처럼 튀는 오브제들은 독특한 음색을 냈다.

이 씨는 “프리페어드 피아노 연주를 위해 20가지 정도의 쓰레기에서 각각 어떤 소리가 나는지 메뉴얼화했다”며 “업사이클링 악기와 비슷한 맥락에서 폐품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잃어버린 동물의 사육제’ 연주도 감상할 수 있었다. 방문객이라면 신경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는 이 노래는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에서 영감을



농악분무기 등을 활용해 만든 ‘유니크 첼로’를 소개하는 이승규 작곡가의 모습.

받아 만들었다. 멸종 위기의 북극곰, 재두루미, 상괘이, 수달, 흰뺨 코뿔소에 이르기까지 기후위기와 관련한 주제 의식을 담았다.

프로그램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이 씨는 “예술테라피라 칭하기엔 지나치게 거창한 면이 있다”며 “방문하는 이들이 다양한 예술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씨는 “‘물꼬’가 많은 사람들이 업사이클링 뮤직에 대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곳에서 환경과 악기에 대해 생각하는 한편 ‘물질로서의 쓰레기’를 넘어 ‘마음의 쓰레기’를 비워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소리꾼 25명이 들려주는 ‘김세종제 춘향가 한바탕’ 무대

‘소리화’ 내일 빛고을국악전수관

무대 위에서 5-6시간 동안 판소리의 향연이 계속된다면 어떨까. 무대와 객석 구분 없이 펼쳐지는 한 판 놀음은 색다른 즐거움을 줄 것이다. 소리꾼 25명이 무대에 올라 춘향가를 연창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판소리예술단 소리화는 박지운 제자발표회 연창 판소리 ‘김세종제 춘향가 한바탕’을 오는 5일(오후 1시)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연다.

올해 서암전통문화대상을 수상한 박지운 명창을 포함해 25명의 제자들이 그 주인공. 이들은 풍물과 춘향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춘향가 가운데에서도 순창 출신의 명창 김세종으로부터 전승된 소리를 연창한다. 김세종제 춘향가는 김찬업, 정응민, 조상현으로 이어지는 바다(판소리 짜임)를 갖추고 있는데 이번 무대에서는 ‘정응민-조상현’ 바다를 선보이게 된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인



무대에 올라 공연하는 단원들의 모습.

<극단 소리화 제공>

박 명창은 판소리예술단 ‘소리화’를 창단해 이끌어 오고 있다.

이번 무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고법 예능보유자 박시양 교수와 이승훈 교수,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1호 판소리고법 전승교육사 양신승이 장단을 더한다. 나주시립국악단 상임단원 정인성 및 소리화 단원들도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박지운 대표는 “이번 공연은 춘향가 한바탕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판소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대주들의 각기 다양한 매력을 담아내 명인명창의 고장 광주에서 위대한 유산 판소리가 꽃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료 관람. 공연 시간 5-6시간 예정.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김수진 작가 ‘푸른 공생자들’



‘푸른 태양의 시간’

4~27일 드영미술관

유기체적 관점에서 모든 생명체는 자연과 하나다. 죽음 이후 소멸이 아닌 자연계를 순환하는 운명을 지닌다. 인간도 예외 없이 죽음 이후에는 흙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김수진 작가의 작품에서는 생명의 본질에 대한 탐색이 느껴진다. 작가가 자주 찾는 무등산을 모티브로 한 그림은 자연을 향한 심상과 깊은 사유를 담고 있다.

드영미술관(관장 김도영)은 2023 청년작가 공모선정전 ‘푸른 공생자들’을 4일부터 27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는 젊은 작가들을 위해 마련한 공모 기획전으로 마련됐으며 김 작가가 올해의 청년작가로 최종 선정됐다.

언급한 대로 이번 전시는 무등산의 풍경과 자

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작가만의 시각언어로 재해석한 작품은 강한 빛 자극과 겹겹이 덧붙인 여러 색채로 독특한 아우라를 발한다.

전시명인 ‘푸른 공생자들’은 이번 전시의 모든 것을 대변한다. 모든 존재는 함께 상생하며 순환이라는 고리로 연결돼 있다는 것.

김도영 관장은 “이번 전시에서는 김 작가가 펼쳐낸 시각적 형상의 특징과 아울러 지향점을 엿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미술관은 신진 청년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11일 오전 10시에는 김 작가와 함께 하는 ‘나이프를 활용한 백드롭페인팅’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참가자 모집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드영미술관 홈페이지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리산문학상에 박미라 시인 ‘전조 증상’

김금비 시인, 최치원신인문학상

제18회 지리산문학상에 박미라 시인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전조 증상’ 등 5편이며 상금은 1000만원.

계간 ‘시산맥’ (대표 문정영 시인)은 지리산문학회(회장 노정섭 시인)는 올해의 지리산문학상에 박미라 시인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유성호 평론가, 권혁웅·김이름 시인 등 심사위원들은 ‘박미라 시인의 시집 한 권 분량은 비극적 언어를 통해 ‘시적인 것’의 깊이를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따뜻한 인간 존재론을 구축해온 결실로 읽혔다’며 “그의 시편들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존재 전

환을 꿈꾸는 상상적 실체로 다가오면서, 일상적인 현실을 때로 벗어나고 때로 그 시간에 충실한 거처를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지리산문학상은 시상 전년도 발표된 기성 시인들의 작품 및 시집을 대상으로 하는 심사제로 운영된다. 지리산문학상은 함양군과 ‘지리산문학회’가 제정해 첫째 정병근 시인을 시작으로 유종인, 정호승, 최승자, 이경림, 홍일표, 김룡 시인 등이 수상했다. 수상작품과 수상소감, 심사평 등은 ‘시산맥’가 유희와 지‘지리산문학’ 동인지에 소개될 예정이다.

이번 지리산문학상 수상자인 박미라 시인은 1996년 대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시집 ‘비



박미라

곳은 저녁에 도착할 수 있을까?’를 펴냈으며 대전일보문학상 본상 등을 수상했다.

지리산문학상과 함께 공모한 제18회 최치원신인문학상은 김금비 시인의 ‘창가의 오펜지’ 등 5편이 선정됐다. 김 시인은 이번 수상으로 계간 ‘시산맥’ 등단자로 인정된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0월 7일 함양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제18회 ‘지리산문학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갈라강판 지붕공사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농막

옥상스틸방수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